

학술특집 구조주의 입문을 위한 소고 (下)

'인식론'의 새로운 지평

다음의 흐름은 인류학과 민족학에서의 구조주의인데, 여기에는 사회과학에 발전시킨 구조주의의 가장 레비-스트로스트(Claude Levi-Strauss)와 모스, 바르드, 고델리에 등이 포함된다. 특히 레비-스트로스트는 사실상의 구조주의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데, 그는 아랍에서 배운 구조주의의 사고체계를 사회현상에 적용시켜 사회과학적 구조주의를 개척했다.

즉, 언어학의 구조주의적 개념을 가족관계, 각종의 사회구조, 문화, 사회체계 등에 적용시켜 구조주의의 사회 인류학의 문을 연 것이다. 구조주의의 또다른 유파는 게스탈트심리학인데, 그것은 본능의 '찌꺼기' 심리학을 비판하면서 구조주의적으로 연구한 베르트하임, 코트카, 쾰러, 트른 등을 포함한다. 게스탈트심리학과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구별되어야 할 분야는 정신분석학적 구조주의이다.

처음 구조주의적 정신분석학은 일찍이 프로이트에서 시작되었고 미국 영국의 정신분석학에 반대하는 흐름을 형성하여 후일 라캉(Jacques Lacan)의 언어심리학에서 크게 발전한다.

그 다음의 구조주의는 주로 문학이론 영역에서 나온 것으로 후기구조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는 푸코, 데리다 등이 속하는데, 이들은 관심영역이 넓어서 문화이론의 유파를 분류

심을 가졌다.

V. 사회과학적 구조주의의 요제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적 구조주의라고 하면 레비-스트로스트, 알튀세르, 발랑자, 푸코와 데리다 등의 구조주의의 거장과 맑스 및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 프로이트, 바울라르, 니아그 스피노자 등의 사회과학적 이론을 지칭한다. 여기서는 레비-스트로스트와 사회인류학자 이드로 배제하고 프로이트와 바울라르, 스피노자도 오히려 철학자에 가까우므로 배제하여 맑스와 구조주의적 맑스주의, 그리고 후기구조주의자인 푸코와

그 이후가 과학적이고 반인간주의적이며 구조주의적인 사유라 생각한다. 맑스가 사용한 생산력·생산관계·생산양식 등의 핵심적 개념은 대부분 상부구조에 대한 토대의 우위성을 내포하며 이는 곧 구조에 대한 인간의 종속성을 말해준다. 또 표면적인 갈등 이면의 관할가능한 심층적 구조의 모순을 강조한다. 바로 이점에서 맑스는 전형적인 구조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통속적으로 구조주의를 좌파로 보는 것도 이때문이다.

알튀세르는 맑스주의를 소수파와 레비-스트로스트적으로 해석한 구조주의의 사회과학자이다. 즉, 4대 저작을 통해 인간주의·실존주의·

조를 강조한데서 끌어온 것이었다.

이점에서 알튀세르의 구조주의는 사회과학적이기 이전에 철학의 인식론적이며, 스피노자적 인식론의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의 구조주의는 사회과학적 구조주의의 원형이 될 정도로 체계적이며 과학적이다.

알튀세르의 뒤를 이은 발랑자도 구조주의적 문제영역(problematic)을 구체화시켰다. 그의 4대 저작은 알튀세르의 그것에 비해 더욱 체계적이고 이론적이다.

그의 핵심적 개념은 국가·계급·독재·정치권력·파시즘 등이고, 그가 개발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은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의 일반이론은 사회 유희론으로서 이것은 생산양식·사회구조·이데올로기·복합국면·이행의 개념으로 구성된다. 이 일반이론은 경제·정치·이데올로기에 관한 부문이론과 생산양식에 따른 특징이론으로 나누어진다.

푸코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치였고 그 와중에서 지식과 권력의 결합관계를 다루

글의 구성	
I. 들어가는 말	(下)
II. 기존 사회인식론으로서의 실증주의	
III. 인간중심적 인식론의 실패	
IV. 구조주의의 등장배경과 흐름	
V. 사회과학적 구조주의의 요제	
VI.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구조주의의 적실성	
VII. 한국사회의 인식론으로서 구조주의의 방향	

었다.

현재의 한국사회는 분단구조의 고착화와 이데올로기적 극우화, 계급대립의 첨예화 및 이들이 빚어내는 사회변동의 정체화와 각종 부차적 모순의 과잉으로 특징지어진다. 물론 그 이면의 구조는 특히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의 한국사회는 구조주의가 전면에 등장한 1960년대의 프랑스와 매우 흡사하다. 즉, 보수주의화상향, 지식인·학생의 역할 중대, 사회주의와 북한사회의 문제점 노출, 혁신 세력의 미비 등이 대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점증적이고 개방주의적인 실증주의적 사회인식론이나 실존주의의 인간중심주의가 타당할 수 없다. 이러한 인식론은 미국과 같이 다원주의적이고 안정적인 데서 몰라도 한국적 현실의 분석, 예측 등에는 무능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점이 한국사회에서 구조주의가 갖는 적실성이다.

적으로 역사적 분석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즉, 알튀세르의 말대로 역사는 연구의 또다른 대상이지 방법이 아니며, 궁극적 통시성(diachronic) 연구에 의존하려고 하면 푸코적인 계보학(genealogy)이나 고고학(archaeology)에 따라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현재적 현상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분유적 구조의 변형과정일 뿐이므로 그 현상에 대한 구조주의적 분석에 의해 그 역사의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 따르면 우선 한국사회의 결정요소가 인간적인 것보다는 구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구조 가운데에서 경제적 하위구조가 여타의 정치·이데올로기·과학적 하위구조보다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찍이 알튀세르가 논의한 바 있는 것으로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사회의 결정적 하위구조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는 경제적 하위구조이고 부차적 하위구조는 기형적 자본주의의 근사파시즘과 매끈한 반식민주의·과국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과학이라는 하위구조이다.

이러한 설명은 달리 한국사회의 형성을 주요구조적 요소·제국주의와 분단주의·2차구조적 요소·분단과 계급·및 현상·각종 모순과 갈등·식민·주요모순·2차모순·현상적 모순 식의 도식도 가능하다. 그러나 알튀세르의 분석은 네가지의 하위구조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그것을 오히려 복합국면이라고 보고 한국사회의 구조적 요소는 국제적 제국주의와 국내적 분단주의로 가정하고 이것들은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구조인 정치·이데올로기·과학으로서의 구조이기도 하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나아가 이러한 분유적 구조가 변형과정을 거쳐 부차적 구조인 분단구조와 계급구조를 형성해내며, 이들의 진전에 따라 각종 모순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구성체 성격에 대한 활발한 논의들은 이러한 이해의 틀을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한 연구들은 최소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몇 분명한 허구나 실증주의·역사주의·비판이론 등과 혼동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한국사회론에 대한 더욱 과학적이고 구조주의적인 방법론의 철학과 이의 적용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VII. 한국사회의 인식론으로서 구조주의의 방향

한국사회를 인식할 수 있는 구조주의는 먼저 실증주의와 인간중심주의라는 소위 주체철학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철학적 인식론의 구성이 필요하다. 즉, 그것들이 가정하는 인식주체로서의 인간이 갖는 한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스피노자·데리다·푸코가 말하는 차원 개념의 인식론이 필요하고, 실증주의적인 환원적 원자주의의 극단적 경험주의 등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방향이 한국사회에 대한 철학적 인식론의 구조주의이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현상은 다원적이고 입체적이며 체계적이지 않아서 하위현상으로서의 환원이나 분절은 필연적으로 생성적 속성을 상실

할 수 있다. 이러한 계급모순에 의해 반역사적(anti-historic)으로 주요모순과 이를 파생시키는 주요구조를 추출할 수 있다. 즉, 계급모순은 급속한 산업화에서 유래했고, 급속한 산업화는 국제분업에의 편입과 조속한 전쟁복구의 필요성에서 유래했으며, 이것은 다시 분단에 의한 자본주의화의 일환이었다. 그러므로 계급모순의 원형은 분단모순이며 분단모순이 주요모순이고 계급모순은 부차적 모순으로 보는 것이다. 이 분단모순은 결국 국제제국주의와 소련의 반제국주의적 제국주의 및 한국의 (반)분단주의라는 주요구조의 산물이다. 물론 양대 제국주의를 놓고는 2대대전도 일본제국주의 등의 국제주의의 전경이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성격은 여타의 주변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조주의에 의해서만 과학적 분석과 예측이 가능하다. 즉, 종래의 근대이론·발전론은

현상은 역사적 과정을 거친 구조의 변형과정으로서 구조주의적 분석 의해 그 역사의 추론 가능

발전적 인간이 있으면 후진국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발전에는 구조적 제약이 있는데 그것이 곧 국제적 제국주의와 자국적 분단주의인 것이다. 후진국가가 주변국가가 되는 것은 국제분업관계에서 선진국에 의해 일여치가 착취당하면서 어느정도의 잉여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종래의 근대이론이 주장한 내용은 결코 아

함으로써 그 파악이 곤란해진다.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또 현상(顯狀)적 현상의 이면에는 잠재적 구조가 있음에 공감해야 하며, 그러한 현상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분유적 구조의 식별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분유적 구조의 변형과정이 형성해내는 각종 모순과 갈등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이러한 이해의 틀은 원칙

김태수
<서울대 박사후·행정학>

맑스 토대 우위성과 구조주의의 인간 종속 강조 한국 사회현상은 '계급·분단구조' 분석으로 규명가능

역사주의적 맑스주의에 대항하여 구조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프로이트에서 종증결정성(overdetermination)의 개념을 원용하여 최종적인 결정요인은 결국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경제적인 구조라고 하였다. 또 그가 주장하는 맑스주의의 인식론적 단절이라는 개념은 가스통 바울라르(Gaston Bachelard)에게서, 그리고 정후발견적 독해의 개념은 프로이트가 표출구조 이면의 심층구

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후기) 구조주의자이다. 그의 인식론의 소위 주체철학을 비판하고 내체류의 변형화를 옹호하며 서구의 이성개념을 편견으로 비하하고 있다. 그의 연구소제는 편입, 환자, 일탈자, 소외자, 이데올로기, 엘리트주의의 부부, 성도착증 성인 등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지식·권력관 관계에 의해 통제된 인간 모습 그 자체였고, 정신과학·의학·심리학·법학·인문학·교육학·통계학·사회학 등의 학문(discipline)은 학문(study)으로서의 학문이 아니라 훈련과 통제(discipline)로서의 그것이었다고 비판한다.

데리다의 해체(deconstruction) 개념은 칸트의 비판(critique)개념과 유사하다고 하여 철학적으로 접근되지만 기존의 절대적인 근원, 중심, 본질 등의 존재를 부정한 점에서 사회과학자로 분류될 수 있다. 그의 차원개념은 실증주의적 인식론의 정반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의 구조주의는 인간적 구조가 통제 불가능한 것, 개체나 부분과 대조되는 것, 관할가능한 것이라는 세가지의 측면을 갖는다.

한편 사회과학적 구조주의의 원형은 반인간주의·환원주의적 전체주의(holism), 심층적 구조의 강조, 분유적 구조의 가정과 변형개념, 형태동일성(isomorphism)의 가정, 이원적 내대개념의 강조, 반역사적 통시성(synchrony)의 강조, 반인간중심적 변형화, 반경험주의로 정리될 수 있다.

VI.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구조주의의 적실성

한국사회는 생산양식으로 볼 때 세계체제의 구성요소인 주변

동대문사단과 월계수회

다. 정치 자체가 폭력인 것 같은 요즈음 '법'의 존재가 폭력적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월계수회의 비합리주의에 그들 '최근 일련의 사태는 월계수회를 무너뜨리려는 집단의 음모'라고 규정하였다. 과연 그 위세만큼 오만방자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은 반성이나 사회를 할 줄 모르는 집단이다.

국회에 들어서서 야당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위협하던 이종재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뒤에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불합리를 떨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인화수, 유자광등이 벌어진 고대습격사건 등의 폭력적 학원침탈과 습격을 겪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국부'가 되려는 대통령과 영원한 정권을 꿈꾸는 타락한 정부와 사회부조리에 관습하여 부귀영화, 무소불위를 이루려는 폭력배들은 형상의 이슬로 사라진 이종재등과 끝내 자살하고 만 이기봉, 자유당정권의 비참한 최후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사가 문화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의 무서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세시봉수 경고하는 바이다.

최근 사태는 제2, 제3의 이종재·유자광을 꿈꾸는 폭력배들과 다시 이승만·이기봉을 꿈꾸는 국회의원들간에 이루어진 역사 복원이 아닐 수 없다. 집권당에 빌붙어 세력을 확보하고 확실한 이익을 꾀하며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폭력집단의 속성과 이들을 이용하여 몇몇하지 못한 정권유지의 방책으로 민주화운동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정권야욕이 합작한 가장

다. 이들은 결국 옹호하는 모양이다. 최근 인천지역의 폭력배들과 집권당 국회의원사이의 부정부패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무풍지대'인가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박철원 전정무장관이 이끄는 '월계수회'와 이들을 깨닫고도 민방위 폭력집단들의 사이에 관계들이 여겨지거나 밝혀지고 있다. 6·29선언과 동시에 부각되기 시작한 월계수회는 애초부터 정권창출에서 유자에 이르기까지 국부(?)인 노태우 대통령'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인 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닌 것이 불명확한 월계수회는 '소위 비정치권에서의 역할수행'을 오랫동안 지속해 온

다. 정치 자체가 폭력인 것 같은 요즈음 '법'의 존재가 폭력적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월계수회의 비합리주의에 그들 '최근 일련의 사태는 월계수회를 무너뜨리려는 집단의 음모'라고 규정하였다. 과연 그 위세만큼 오만방자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은 반성이나 사회를 할 줄 모르는 집단이다.

국회에 들어서서 야당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위협하던 이종재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뒤에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불합리를 떨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인화수, 유자광등이 벌어진 고대습격사건 등의 폭력적 학원침탈과 습격을 겪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국부'가 되려는 대통령과 영원한 정권을 꿈꾸는 타락한 정부와 사회부조리에 관습하여 부귀영화, 무소불위를 이루려는 폭력배들은 형상의 이슬로 사라진 이종재등과 끝내 자살하고 만 이기봉, 자유당정권의 비참한 최후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사가 문화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의 무서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세시봉수 경고하는 바이다.

최근 사태는 제2, 제3의 이종재·유자광을 꿈꾸는 폭력배들과 다시 이승만·이기봉을 꿈꾸는 국회의원들간에 이루어진 역사 복원이 아닐 수 없다. 집권당에 빌붙어 세력을 확보하고 확실한 이익을 꾀하며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폭력집단의 속성과 이들을 이용하여 몇몇하지 못한 정권유지의 방책으로 민주화운동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정권야욕이 합작한 가장

英 字 The Korea Herald 直營

日刊紙 新聞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외국어특강

개강→12월 3일

독 해 Korea Herald, Time, Digest 영문해석등 철저한 분석독해

회 화 Practical English, Side by Side American Stream-Line 민병철형영어, 미국인 회화

영작, 어휘력, 청취력 기본영어문법연구, Vocabulary 22,000 Movie English TOEFL L/C 및 미국어 Hearing, AFKN

TOEFL 아카데미 TOEFL TOEFL L/C

종합영어(입문→고급) 미국식교과서영어→기초영어완성→영어 실력기초→성문기초영어→성문종합영어

동시통역대학원 입시반 외대동시통역대학원 입학 위한 1일 4시간 집중코스

일 어 일본인회화/박성원(입문→고급) SCREEN 회화, NHK 필름/동경일본어/비즈니스영어

제2외국어, 불, 중, 서, 일어, 베트남어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옆 757-0419

코리아헤럴드

외국언어특강

영어회화

시청각

◆제73기과정 모집 안내◆

개 강: 1990년 12월 7일

교육방법: American Streamline English and Most extensive A/V program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 회화과정

반 편 성: 개인별 테스트후 수준이 비슷한 수강생들로 한반 12명내외로 편성

●수준테스트는 매월2회 실시합니다 (11:30AM, 6:30PM)

교육과정: 1일 2시간 주5일(월~금) 수업, 기초부터 최고급까지 6개 수준 각 8주과정

강 사 진: 미국 Harvard 대학출신등고 학력 수준의 전인 Native Speakers.

◆수업시간◆

7:00~8:45AM 10:00~12:00AM
5:00~7:00PM 6:00~8:00PM
7:00~9:00PM 8:00~10:00PM

◆무역영어 과정◆

●TOEFL종합반, 러시아어

●한국말 (Korean Language Courses)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입구 756-7711

코리아헤럴드

어학연수원

서울컴퓨터학원

22年의 信賴와 權威 원장 민경현

개강: 매월 첫째주 월요일

- 프로그래밍 정규 과정
- PC(IBM호환) 과정
- 여성OA 과정
- UNIX & C 과정
- 주말 특강 과정
- MS-DOS&WP, dBASE III+, LOTUS, PARASCAL, C, PC ASSEMBLER, SPSS
- 정보처리기사 필기 특강
- 과목별 주단위 중점 강의
- 핵심 정리 및 예상문제 강의

1급	●기간: 12. 17~2. 1 (6주)
	●시간: 13:00~15:30, 19:00~21:30
2급	●기간: 12. 17~1. 25 (5주)
	●시간: 16:00~18:30

- 정보처리기사 실기 특강
- 세계 표준 OS인 대형 UNIX 시스템과 IBM 16BIT PC를 이용한 완벽한 실습
- 전철 통학권 발급, 성적 우수자 장학제도

사무자동화반 Office Automation

일반 행정직 Chart

매월1회 단과입영

상급부대 행정병으로 복무

인성 차트 학원

732-5348 735-3771

情報處理專門教育學院

종로학원 735-0211-5 종로2가 YMCA 옆

남부학원 548-2030-2 신사동4거리 럭비공원 뒤

軍·행정병 모집

육군참모총장위촉처

大學綜合英語

Harvard 대학교 언어학 박사 姜 英 世 教授의

22年의 信賴와 權威 원장 민경현

개강: 매월 첫째주 월요일

- 프로그래밍 정규 과정
- PC(IBM호환) 과정
- 여성OA 과정
- UNIX & C 과정
- 주말 특강 과정
- MS-DOS&WP, dBASE III+, LOTUS, PARASCAL, C, PC ASSEMBLER, SPSS
- 정보처리기사 필기 특강
- 과목별 주단위 중점 강의
- 핵심 정리 및 예상문제 강의

1급	●기간: 12. 17~2. 1 (6주)
	●시간: 13:00~15:30, 19:00~21:30
2급	●기간: 12. 17~1. 25 (5주)
	●시간: 16:00~18:30

- 정보처리기사 실기 특강
- 세계 표준 OS인 대형 UNIX 시스템과 IBM 16BIT PC를 이용한 완벽한 실습
- 전철 통학권 발급, 성적 우수자 장학제도

사무자동화반 Office Automation

일반 행정직 Chart

매월1회 단과입영

상급부대 행정병으로 복무

인성 차트 학원

732-5348 735-3771

情報處理專門教育學院

종로학원 735-0211-5 종로2가 YMCA 옆

남부학원 548-2030-2 신사동4거리 럭비공원 뒤

TOEFL

개강: 매월 첫째주 월요일

- 프로그래밍 정규 과정
- PC(IBM호환) 과정
- 여성OA 과정
- UNIX & C 과정
- 주말 특강 과정
- MS-DOS&WP, dBASE III+, LOTUS, PARASCAL, C, PC ASSEMBLER, SPSS
- 정보처리기사 필기 특강
- 과목별 주단위 중점 강의
- 핵심 정리 및 예상문제 강의

1급	●기간: 12. 17~2. 1 (6주)
	●시간: 13:00~15:30, 19:00~21:30
2급	●기간: 12. 17~1. 25 (5주)
	●시간: 16:00~18:30

- 정보처리기사 실기 특강
- 세계 표준 OS인 대형 UNIX 시스템과 IBM 16BIT PC를 이용한 완벽한 실습
- 전철 통학권 발급, 성적 우수자 장학제도

사무자동화반 Office Automation

일반 행정직 Chart

매월1회 단과입영

상급부대 행정병으로 복무

인성 차트 학원

732-5348 735-3771

情報處理專門教育學院

종로학원 735-0211-5 종로2가 YMCA 옆

남부학원 548-2030-2 신사동4거리 럭비공원 뒤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 Placement Test 거친 Level별 학급편성
- 동일 Level로 구성된 12명정원
- 엄격한 학사관리
- TESOL 영어교육학)을 전공한 성실한 미국인 강사진담당
- 수업일수 20일

Placement Test - 20일후에 주중: 1-3, 토: 1-4 매시간

PAGODA

LANGUAGE SCHOOL

274-4000, 6821-2

TOEFL

개강: 매월 첫째주 월요일

- 프로그래밍 정규 과정
- PC(IBM호환) 과정
- 여성OA 과정
- UNIX & C 과정
- 주말 특강 과정
- MS-DOS&WP, dBASE III+, LOTUS, PARASCAL, C, PC ASSEMBLER, SPSS
- 정보처리기사 필기 특강
- 과목별 주단위 중점 강의
- 핵심 정리 및 예상문제 강의

1급	●기간: 12. 17~2. 1 (6주)
	●시간: 13:00~15:30, 19:00~21:30
2급	●기간: 12. 17~1. 25 (5주)
	●시간: 16:00~18:30

- 정보처리기사 실기 특강
- 세계 표준 OS인 대형 UNIX 시스템과 IBM 16BIT PC를 이용한 완벽한 실습
- 전철 통학권 발급, 성적 우수자 장학제도

사무자동화반 Office Automation

일반 행정직 Chart

매월1회 단과입영

상급부대 행정병으로 복무

인성 차트 학원

732-5348 735-3771

情報處理專門教育學院

종로학원 735-0211-5 종로2가 YMCA 옆

남부학원 548-2030-2 신사동4거리 럭비공원 뒤

TOEFL

개강: 매월 첫째주 월요일

- 프로그래밍 정규 과정
- PC(IBM호환) 과정
- 여성OA 과정
- UNIX & C 과정
- 주말 특강 과정
- MS-DOS&WP, dBASE III+, LOTUS, PARASCAL, C, PC ASSEMBLER, SPSS
- 정보처리기사 필기 특강
- 과목별 주단위 중점 강의
- 핵심 정리 및 예상문제 강의

1급	●기간: 12. 17~2. 1 (6주)
	●시간: 13:00~15:30, 19:00~21:30
2급	●기간: 12. 17~1. 25 (5주)
	●시간: 16:00~18:30

- 정보처리기사 실기 특강
- 세계 표준 OS인 대형 UNIX 시스템과 IBM 16BIT PC를 이용한 완벽한 실습
- 전철 통학권 발급, 성적 우수자 장학제도

사무자동화반 Office Automation

일반 행정직 Chart

매월1회 단과입영

상급부대 행정병으로 복무

인성 차트 학원

732-5348 735-3771

情報處理專門教育學院

종로학원 735-0211-5 종로2가 YMCA 옆

남부학원 548-2030-2 신사동4거리 럭비공원 뒤